깊은 우정의 매력

이낙희 신부 편집

차례

..... 1
서 론 5
제 1 장. 우정의 가치 7
우정은 기쁨을 더하고 슬픔을 덜어 줍니다 8
우정은 고독을 피하게 해 줍니다 8
우정은 부정적인 감정을 변화시킵니다 9
우정은 보호해 주고 어려움 속에서 버팀목이 됩니다 10
우정은 사심이 없으며 죽음에 이르기까지 동반합니다 11
우정은 행복을 증진하고 더하여 줍니다 13
우정은 하느님과의 일치로 이끕니다 14
제 2 장. 정서적 유대감. 16
첫 만남. 16
동료 관계 17
정서적 유대감 18
감정의 소통과 함께 생활 19
애정의 힘 20
정서적 유대감의 한계 21

제 3 장. 친구를 이해한다는 것 25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보기 25
공감 26
지적 이해 27
이해의 토대는 사랑 28
이해하기 위해 듣기 29
신뢰를 불러일으키기 30
이해받기 31
제 4 장. 공통 관심사 33
다양성과 상호보완성 35
객관적 친화성의 약점 35
관심사의 양과 질 37
제 5 장. 친구에 대한 관심 39
의지의 개입 39
공통의 관심사에 대한 인격 선택의 영향 41
감정적 친밀감에 대한 인격 선택의 영향 42
상호성과 친구의 수 46
친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 47
요약 49
결론 51

이 책은 프란시스코 우가르테의 저서 "우정의 기술" (2014)을 요약하고 번역한 것입니다.

서 론

평범한 사람이 일반적으로 갖는 진정한 친구의 수는 얼마나 될까요? 단순한 지인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친한 친구로서 말입니다. 이 물음에 답하려고 할 때, 저마다 먼저 자신의 상황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는 진정한 친구가 몇 명이나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많은 경우, 그 대답은 놀라울 정도로 빈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정이 자신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를 깨닫게 될 때 더욱 그러합니다. 진정한 친구가 없는 사람은 삶의 여러 영역에서 심각하게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지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일과 쉼에 있어서도 우리는 서로를 보완해 줄 친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친구 없이는 고독과 불안과 권태만이 남습니다. 반면, 친구를 갖는다는 것은 삶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보물 중 하나입니다.

이어서 떠오르는 물음은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이유로 접촉하며 지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친구를 갖지 못하는 것일까요? 진정한 우정을 쌓는 것은 쉬운 일일까요, 아니면 어려운 일일까요? 이 물음은 일종의 역설처럼 보입니다. 우정이 그토록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이기에 누구나 쉽게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경험은 그 반대를 말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진정한 우정을 쌓기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며, 그 이유도 다양합니다. 공감 능력이 부족한 기질, 타인에 대한 불신, 이기적인 개인주의, 지나친 활동주의와 시간 부족, 인간관계의 피상성, 타인의 생각이나 관습에 대한 개방성 부족 등이 그것입니다.

또한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그것을 실천하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어려움부터 해결하는 것이 매우 적절합니다. 우정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갖추게 되면, 나머지 어려움들도 보다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지, 어떤 장애물을 극복해야 하는지 알게 되어 진정한 친구를 사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모든 시대의 저자들의 몇 가지 인용을 통해 우정의 가치를 먼저 조명한 뒤, 우정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분석하여 우정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제 1 장. 우정의 가치

우정 자체의 가치와 모든 사람의 삶에 있어서 우정의 중요성에 관한 의견은 만장일치인 것처럼 보입니다. 우정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 유익이 풍부하다는 것에 모두가 동의합니다. 우정의 가치는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친구가 의미하는 것을 경험해 보았거나, 친구가 없을 때 그들의 필요성을 절감했거나 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그 가치는 자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경우, 우정을 직접적으로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그 부재가 남기는 공허함을 통해 우정의 가치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통틀어 우정의 가치에 관하여 숭고한 말들이 많이 전해 내려왔으며, 이는 삶에 있어서 친구를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공통된 확신을 표현해 줍니다. 집회서는 친구를 얻은 사람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성실한 친구는 값으로 따질 수 없으니 어떤 저울로도 그의 가치를 달 수 없다.”(집회 6,15).

친구를 값을 헤아릴 수 없는 보물에 비유하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친구가 주는 것은 돈을 포함한 어떤 물질적인 것보다도 훨씬 더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저자들은 우정을 가장 높은 선들 중 하나일 뿐 아니라 가장

위대한 선으로 여기면서, 우정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나타내었습니다.

이처럼 우정이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정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정이 왜 그토록 큰 선인지에 대한 이유를 모두 열거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저자들의 증언을 통해 그 이유 중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정은 기쁨을 더하고 슬픔을 덜어 줍니다

삶에 일어난 좋은 일이나 받은 어떤 선으로 인해 기쁜 마음이 생길 때, 사람은 사랑하는 이들과 그것을 나누려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그 기쁨이 내면에서 더욱 커지는 것을 느낍니다. 기쁨을 다른 이들과 나누면, 물질적인 것들과 달리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슬픔은 그 반대입니다. 친구들과 슬픔을 나누면 그 무거운 무게가 줄어들고,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위안을 얻습니다.

우정은 고독을 피하게 해 줍니다

항상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고독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정의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고독의 문제가 사람들과의 물리적 거리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사람들과의 내적 유대의 부재에서 비롯됨을 뜻합니다. 이것이 바로 함께 살면서도 우정이 없을 때 생기는 상황이며, 그로 인한 고통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가 없고 고독하다는 것은 가장 두려운 일이니, 친구 없이는 삶 전체도 자유로운 결합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에우데모스 윤리학", VII).

반면, 우정의 관계는 친구와 하나가 되게 합니다. 이는 그와 가까이 있으면서, 그가 고독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함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성 토마스가 말하듯이, *어떤 사람과 우정을 나눌 때, 우리는 사랑하는 이를 위해 자신에게 원하는 것과 같이 선을 바라게 되며, 그래서 친구를 또 다른 자아로 여기게 되기 때문이다.*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 1-2, q. 28, a. 1).

우정은 부정적인 감정을 변화시킵니다

우정이 진실한 것일 때, 친구에 대한 인식과 그에 관한 모든 것은 놀랍도록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가지게 되는 애정 때문입니다. 갈등의 어떤 계기도 일치의 기회가 되고, 다른 경우라면 시기심의 쓴맛을 낳을 것도 기쁨의 원천이 됩니다. 친구의 선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4 세기의 위대한 두 친구인 성 그레고리오 나지안조와 성 바실리오 대제에 관해, 전자의 증언에 따르면 이렇게 읽힙니다. *우리를 움직인 것은 앎에 대한 동일한 열망이었는데, 이는 보통 깊은 시기심을 불러일으키곤 하지만, 우리에게는 시기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상호 절차탁마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우리는 누가 첫째가 되느냐가 아니라, 누가 다른 이에게 우선권을 양보할 것인가를 겨루었습니다. 우리 각자는 다른 이의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여겼습니다*(성 그레고리오 나지안조, 강론 43).

진정한 우정의 놀라운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각자가 친구의 성공과 그의 선을 이루는 모든 것 앞에서 진심 어린 기쁨을 느낀다는 것인데, 이는 우정이 진실하지 않을 때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스카 와일드는 날카롭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나 친구의 고통에는 공감할 수 있지만, 친구의 성공에 공감하려면 매우 섬세한 감수성이 필요하다*(오스카 와일드, 사회주의 하에서의 인간의 영혼).

우정은 보호해 주고 어려움 속에서 버팀목이 됩니다

성실한 친구는 든든한 피난처로서 그를 얻으면 보물을 얻은 셈이다. (집회 6,14).

어려운 것은 친구가 옳을 때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친구가 틀렸을 때 함께 있는 것입니다. 새벽 네 시에도 깨울 수 있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친구에게 자신보다 우선순위를 둡니다. 친구의 필요가 요구한다면, 자신의 취향과 이익을 기꺼이 내려놓습니다. 이는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 더욱 두드러지는데, 그럴 때는 자신을 포기하고, 위험을 감수하며, 다른 이를 지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러한 역경의 상황에서 거짓 우정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다음 이솝 우화가 이를 생생하게 보여 줍니다.

두 친구가 같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곰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한 친구는 황급히 나무 위로 올라가 숨었습니다. 다른 친구는 잡힐 위기에 처하자, 땅에 쓰러져 죽은 척했습니다. 곰이 코를 가까이 대고 냄새를 맡는 동안, 그는 숨을 참았습니다. 곰은 시체를 건드리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곰이 떠나자, 나무 위의 친구가 곰이 귀에 뭐라고 속삭였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대답했습니다. "위험한 순간에도 곁에 있어 주지 않는 그런 친구와는 앞으로 함께 여행하지 말라고 했어."

우정은 사심이 없으며 죽음에 이르기까지 동반합니다

우정에서의 사심 없음이란, 친구의 이익이 우선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이익을 뒤로 미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동시에 친구에 대한 관심이 전적이고 한계가 없게 하는 조건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걸어야 할 때에도 그러합니다.

전시 상황에서 일어난, 한 병사와 그의 대위 사이의 대화가 이를 감동적으로 전해 줍니다. *"대위님, 제 친구가 전장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찾으러 나갈 허락을 요청합니다." 대위가 말했습니다. "불허다. 아마 죽었을 사람 때문에 목숨을 걸기를 원하지 않는다." 병사는 금지령을 어기고 나갔습니다. 한 시간 뒤, 치명상을 입은 채 친구의 주검을 옮기며 돌아왔습니다. 대위는 격노하여 말했습니다. "죽었다고 했잖아! 이제 병사 두 명을 잃었어! 주검을 가져오기 위해 나갈 가치가 있었나?" 병사는 죽어 가면서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대위님! 제가 그를 발견했을 때, 그는 아직 살아 있었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이메, 네가 올 줄 알았어."*

또 다른 사건이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우정의 가치를 부각시킵니다. 피타고라스 학파 철학자 핀티아스가 폭군 디오니시오스에게 사형 선고를 받고, 도시 밖의 집을 정리하기 위해 하루의 말미를 청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디오니시오스는 그의 친구 다몬을 인질로 남겨 두는 조건으로 허락했습니다. 다몬이 태연히 나타나고 핀티아스가 제때 돌아오는 것을 본 디오니시오스는, 그를

처형하는 대신 두 사람의 우정에 크게 감동하여 겸허히 그 우정의 일원으로 받아 달라고 청했습니다. (인드로 몬타넬리, 그리스인 이야기).

우정은 행복을 증진하고 더하여 줍니다

친구들이 모든 인간이 경험하는 행복에 대한 근원적 바람의 실현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이 덕에, 특히 관상적 덕에 있다고 주장한 뒤(관상적 덕은 지혜로운 이에게 일종의 자족성을 부여하여, 행복하기 위해 다른 무엇도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우정이 행복에 필요한지 여부를 묻습니다. 그는 답변에서 사변적 분석을 떠나 실존적 경험에 주목하며 이렇게 결론짓습니다. *낯선 사람들이나 우연히 만난 사람들과 지내는 것보다 친구들과 덕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날들을 보내는 것이 분명히 더 낫다. 따라서 행복한 사람에게도 친구들이 필요하다.*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IX, 9).

다른 관점에서 보면, 행복이 사람이 자신의 모든 능력을 발휘하고 강점을 개발할 때 이루는 충만에서 비롯된다면, 그 충만에 도달하기 위해 우정을 빼놓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정은 인간적 완성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성장하고 나아지기 위해서는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정은 행복에 덧붙여지는 무언가가 아니라, 행복을 이루는 요소로서 행복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정 없이는 인간의 완성이 불완전한 채로 남고, 우정 없이는 행복도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정은 하느님과의 일치로 이끕니다

진정한 우정의 명확한 표시 중 하나는, 친구가 친구의 지속적인 향상과 성장을 바라며 그것을 이루도록 돕기 위한 방법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각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가장 좋은 것을 줍니다. 오직 상대방을 이롭게 하려는 유일한 관심으로. 신앙인에게 있어서, 친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이 무엇인지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친구를 하느님께로 이끄는 것입니다. 페르난도 오카리스는 이를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이에게 선을 바라고 이루어 주도록 이끌기에, 사랑의 질서는 무엇보다 다른 이들을 하느님과의 일치로 이끌도록 이끕니다. 왜냐하면 바로 거기에 최고의 선, 결정적인 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페르난도 오카리스, 하느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라).

그렇다면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를 설명하면서, *존중하고 친절한 태도에서 출발하여, 첫 번째 순간은 개인적 대화인데, 그 안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기쁨, 희망, 사랑하는 이들에 대한 걱정, 마음을 가득 채우는 많은 것들을 표현하고 나눕니다. 이러한 대화 이후에야 비로소 근본적인 선포를 그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곧, 인간이 되시어 우리를 위해 당신을 내어 주시고 부활하시어 당신의 구원과 우정을 베풀어 주시는 하느님의 개인적인 사랑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복음의 기쁨, 2013 년 11 월, 128 항).

우정의 가치는 자명하게 드러나기에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지만, 여기서 제시한 이유들은 우정이 가꿀 가치가 있는 진정한 보물임을 확인시켜 주며, 우정의 가치에 관한 의견이 왜 만장일치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제 2 장. 정서적 유대감.

첫 만남.

우정에는 과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정을 구성하는 첫 번째 요소를 살펴보기 전에, 우정을 시작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거치는 사전 단계들을 먼저 설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보통은 가족, 직장, 사회, 종교, 스포츠 등 매우 다양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 중에서 우정의 유대가 형성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관계는 항상 친구를 사귀기 위한 출발점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이러한 첫 만남은 우연적인 것일 수도 있고 의도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전자는 가장 흔하고 자연스러운 경우로, 어떤 활동을 하다가 그 자리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새로운 사람들을 알고 싶다는 명확한 의도가 있거나—예를 들어 교류를 위해 사교 모임이나 스포츠 클럽에 가입하는 경우—, 혹은 지금까지 소문으로만 알고 있던 특정 인물을 직접 만날 기회를 일부러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경우에 우정의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거기까지입니다. 우정에 이르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를 밟아야 합니다.

동료 관계.

첫 만남이 계속 이어져 서로 어울리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사람들은 서로를 알아 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함께 일하는 경우라면, 각자가 상대방의 여러 면들을 파악하게 되고, 차츰 낯선 사이를 벗어나게 됩니다. 두 사람 사이에 관계가 형성되는데, 그 내용은 함께 하는 활동과 지금까지 쌓인 얕은 상호 이해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관계를 *동료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학교의 학생들, 축구 팀의 선수들, 공장의 직원들, 회사의 동료들, 종교 단체의 구성원들이 바로 동료입니다. 그들의 유대는 약하고 그들을 하나로 묶어 주는 이유—즉 함께 하는 활동—에 지나치게 의존합니다. 따라서 그 이유가 사라지면 더 이상 만나지 않게 됩니다.

다른 학교로 전학 간 학생은 이전 반 친구들을 잃게 되고, 팀을 떠난 선수는 함께 뛰던 동료들을 더 이상 만나지 못하며, 직장을 옮긴 사람은 이전 동료들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이 각각의 경우에서 동료 관계가 얼마나 약할 수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동료 관계의 가장 큰 약점은 관계에 *개인적인* 내용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동료라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것—함께 하는 활동—의 단순한 부수적 상황처럼 되어 버립니다. 이런 상황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년간 옆자리에서 일하면서도 상대의 내면에 접근하지 못해 진정한 의미의 인격적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관심의 부족이 단순한 동료 관계의 특징입니다.

정서적 유대감

이와 대조적으로, 때로는 두 명 이상의 동료 사이에서 갑자기 더 가깝게 지내고 싶은 욕구가 생겨납니다. 이는 서로 사이에 존재하는 *친화력*을 발견하기 때문이며, 이로부터 가까워지려는 경향이 생겨납니다. 여기까지는 아직 우정이라고 할 수 없지만, 동료 관계가 우정의 *바탕*이 된다는 것, 즉 친구가 되기 이전에 어떤 의미에서는 항상 동료였던 적이 있기에 동료 관계가 우정의 시작이 될 수 있음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동료 관계에서 우정으로 나아가려는 충동을 만들어 내는 유대감이란 무엇일까요? 유대감이란 추상적으로 말하면, 어떤 것이 다른 것과 유사하다는 것, 어떤 측면에서 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지성은 객관적으로 사고해야 하고, 의지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실행에 옮길 수 있어야 하며, 정서는 제대로 방향이 잡힌 감정의 강렬함으로 열정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 번째 측면은 우정에서 본질적인 역할을 합니다. *마음이야말로 인격의 가장 개인적인 삶의 보물들이 쌓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의 소통과 함께 생활

단순한 동료 관계를 유지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주관적 친화력이 깨어나면, 그들은 변화를 경험합니다. 자발적이고 상호적인 이끌림이 생겨나고, 교류하는 것이 즐거우며 관계가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소통이 원활해지는데, 이는 언어적 방법만이 아니라 몸짓 언어를 통해서도 이루어집니다. 몸짓, 눈빛, 태도는 감정을 전달하는 매체이기에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감정적 메시지의 90%는 비언어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상호적인 이끌림은 함께하는 생활도 북돋아 줍니다. 서로 만날 기회를 찾고, 애정이 깊어지고, 교류가 원활해지며 모든 것이 차츰 합일을 향해, 즉 우정의 본질적인 요소가 될 상호 동일시를 향해 나아갑니다. 이 정서적 친화력과 그에 따른 감정의 소통은 함께 생활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같은 것을 좋아하고 같은 것에 기뻐하고 같은 것에 슬퍼하지 않으면 함께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주해*).

애정의 힘

감정에서 나오는 애정은 의지의 사랑과 구별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자신이 사랑하는 것 없이는 살 수 없을 때 감정으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 *마태오 복음 주해*).

따라서 이것은 합일을 향해, 사랑하는 사람과의 동일시를 향해 나아가는 힘으로서, 그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떼어 놓을 수 없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의 현존을 요구하고 필요로 하게 됩니다.

사람들 사이에 친화력이 있을 때, 감정의 소통은 감정 자체에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기쁨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 더욱 커지고, 위로는 슬픔을 더 감당하기 쉽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나 우정이 감정으로부터 유익을 받으려면, 정서가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즉 외부의 자극에 대한 반응이 그 자극에 걸맞은 적절한 비례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은 반응의 질과 강도 모두에 관련됩니다. 누군가가 친구의 갑작스러운 부고를 듣고 기뻐한다면, 이 경우 정상적인 반응은 슬퍼하는 것이므로 그 반응은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서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에게 분노로 반응한다면, 그 반응도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그 자극과 비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객관성"은 정서적 성숙의 표시이자 감정이 잘 형성되어 있다는 신호로, 우정 관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정서적 친화력은—정서의 성숙을 전제로 할 때—우정에서 본질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동료 관계에는 없는 개인적이고 내밀한 성격을 당사자들의 관계에 부여해 주기 때문입니다.

정서적 유대감의 한계

그러나 우정에서 호감이나 공감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에도,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 *한계*는 정서적, 감정적 친화력이 그 자체만으로는 관계가 견고함과 안정성을 갖추게 해 줄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관계가 오직 공유된 감정에만 의존한다면, 그러한 감정적 현상의 변덕에 종속될 것이고 의지라는 지탱대가 부족하게 됩니다.

다음의 대화는 애정이 식어 버렸을 때 의지의 힘으로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스티븐, 제 아내와 저는 더 이상 예전 같은 감정으로 묶여 있지 않습니다. 이제 저는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아내도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서로 아무런 감정도 없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세 아이가 있는데 정말 걱정됩니다.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라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이 더 이상 우리 사이에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이해를 못 하시는군요. 사랑이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십시오. 감정이 사라졌다면, 그것이 바로 아내를 사랑해야 할 좋은 이유입니다.

—하지만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랑은—감정으로서는—사랑함의 열매입니다. 따라서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섬기십시오. 아내를 위해 희생하십시오. 아내의 말에 귀 기울이십시오. 아내의 감정을 함께 나누십시오. 아내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아내를 지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스티븐 커비,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또한 우정의 내용이 감정 이외의 것이 없다면 변질될 수 있습니다. 감정의 세계는 스스로의 자발성에 맡겨 두면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친구를 그에 대한 애정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만족감—사랑받고, 관심받고, 선택받는다는 느낌—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는 친구들에 대해 소유욕적인 태도를 취하게 만들 수도 있으며, 심지어 그들이 다른 사람들과 우정을 나눌 때 질투를 경험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참된 우정은, C.S. 루이스의 말처럼, *사랑 가운데 가장 질투심이 없는 것*인데도 말입니다. 이 현상은 아직 정서적 성숙에 이르지 못한 청소년들 사이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우정은 감정 이외에도 다른 내용들을 필요로 합니다. 정서적 친화력은 엔진의 부품들이 원활하고 무리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윤활유와 같습니다. 엔진에 오일이 부족하면 고장이 나거나 적어도 멈춰 서게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호감이나 공감이 없고, 인격적 접근을 이토록 촉진하는 감정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동료 관계를

넘어서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윤활유가 있다 해도 엔진에 부품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 3 장. 친구를 이해한다는 것

인간관계는 대개 피상적인 앎에서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의 겉모습만을 알게 됩니다. 그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사회적으로 어떻게 처신하는지를 파악하게 되지만, 자칫 겉모습에만 집착하는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멀리서, 바깥에서만 바라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마치 그들이 관계를 맺어야 할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물건인 것처럼 말입니다.

한 사람을 깊이 안다는 것은 그를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이해는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친구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의 내면을 알고 파악하는 것, 그의 마음 깊은 곳으로 들어가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를 안에서부터 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보기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미 말한 내용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은 고유한 생각과 삶과 반응 방식을 지닌 주체이지, 사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의 입장이 되어* 그 사람 자신으로부터 그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두 가지 차원을 포함합니다. 하나는 *감정적·정서적 차원*으로, 그 내용은 감정입니다. 다른 하나는 *지적 차원*으로, 상대방의 개념과 사고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두 차원은 따로 분석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서로 뒤섞여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의 통일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공감

감정적으로 상대방의 입장이 되는 능력을 *공감*이라고 합니다. 공감은 *동감*과는 다릅니다. 동감이란, 이미 살펴보았듯이, '함께 느낀다'는 뜻으로 상대방과 감정적으로 일치하는 것입니다. 반면 공감은 '안에서 느낀다'는 뜻으로, 상대방이 느끼는 것을 함께 느끼며 그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공감의 자질이 깊이 배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덕분에 다른 이들은 그들을 처음 만나는 순간부터 친밀감을 느끼고, 막 알게 된 사이임에도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게 됩니다.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실질적인 해결책을 기대하지 않더라도 그들을 찾아옵니다.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줄 수 있고 그 감정과 정서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에서 느끼는 *이해의 느낌* 자체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진실한 정—정서적 친밀감—이 생겨나며, 이는 우정 관계를 크게 북돋아 줍니다.

지적 이해

이해가 온전해지기 위해 필요한 또 다른 차원은 지적인 차원입니다. 이는 상대방이 세상을 보는 대로 세상을 보고, 그의 개념과 '패러다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패러다임은 안경과 같습니다. 삶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패러다임에서 우리의 태도와 행동이 비롯됩니다.

자주 저지르는 큰 실수는 *우리 자신의* 패러다임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는 많은 경우 미리 굳어진 판단, 즉 편견으로 이어집니다. 그 결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밖에서만 그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참된 이해는 지적으로도 상대방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요구합니다. 즉, 그가 현실을 바라보는 대로 보기 위해 그의

안경을 써 보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정은 빠르게 깊어지고 친구들 사이의 일치로 이어집니다.

이를 위해 상대방의 생각 방식에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의 입장이 된다는 것이 그의 관점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때로 그 관점은 내게 잘못되거나 불완전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잠시 내 안경을 벗고 그의 안경을 써 볼 줄 아는 것입니다. 이는 친구들 사이에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성 호세마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우정이 있다면 비록 나누거나 받아들일 수는 없을지라도, 친구의 신념을 이해하려고 진심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밭고랑, 746 항).

이해의 토대는 사랑

이 과정은 기술적인 문제나 행동 공식이 아닙니다. 한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습관적으로 상대방의 입장이 되려는 노력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랑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람은 자기 안에 갇혀 버립니다. 이 사랑이 우정에 본질적인 것은, 사랑이 있어야 친구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다른 사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일정한 *동일시*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동일시는 사랑의 근본적인 결과로, 이를 통해 친구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해하기 위해 듣기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충분히 실천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듣는 것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듣느냐입니다. *이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들어야 합니다. 다른 의도를 가지고 들을 수도 있습니다. 제기된 문제에 답하기 위해, 충고를 주기 위해, 특정한 행동을 취하기 위해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의 메시지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이 하려는 일을 위한 단순한 수단이 됩니다. 그 결과, 충분히 듣지 않게 됩니다. 반면 *이해하기 위해* 들을 때에는, 메시지 자체와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중요하며, 그곳에 온전히 집중하게 됩니다.

듣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말하고, 읽고, 쓰는 법을 배우는 데는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만, 듣는 법을 배우는 데는 그러지 않습니다. 잘 듣는 것은 하나의 기술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으로 듣습니다. *눈으로* 들어 몸짓 언어를

포착합니다. 몸짓 언어는 종종 말 자체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합니다. 하나의 표정, 기쁨의 표현, 단순한 존재감이 긴 설명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 줄 수 있습니다.

이해력으로 들어 표현된 것의 이유와 그것을 표현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파악합니다. *마음으로* 들어 상대방의 감정에 참여하고 그가 느끼는 것을 이해합니다. *마음에는 이성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듣는 것은 노력과 인내를 요구하는 일입니다. 진정으로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그를 이해하려 한다면 말입니다. 진정한 우정이 있을 때, 친구들은 서로에 대한 관심과 그들을 이어주는 유대감으로 기꺼이 서로의 말을 들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시간이 가는 줄을 모릅니다.

신뢰를 불러일으키기

한 사람을 이해하기 위한 또 다른 조건은, 그 사람이 가식이나 이중성 없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내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내가 그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신뢰를 느낄 때, 그는 자연스럽고 소박하게 행동합니다. 이는 우정을 향한 과정을 크게 도와줍니다.

어떤 것이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느끼게 할까요? 그 근본은 진실성과 일관성, 즉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이 되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신뢰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의 일관된 행동 방식과 존재 방식을 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신뢰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기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친구들은 서로에 대해 완전한 신뢰를 갖습니다. 각자가 일관되기 때문이며, 이것이 다른 이들로 하여금 그 우정을 의심하지 않게 합니다. *분별 있고, 소박하며, 다정하고, 겸손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친밀해지고 깊어지며, 서로를 알아 가고 따라서 서로에게 선을 베풀기 위해 필요한 신뢰의 분위기를 만들어 냅니다.*

이해받기

우정은 상호적인 것이므로, 친구들 사이의 이해도 서로 주고받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는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뿐 아니라, 상대방이 나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마음의 준비도 필요합니다.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그는 *나의 입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내가 나의 감정, 신념, 모든 행동의 원천인 내면세계를 그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내밀한 핵심의 내용은 감정적·정서적인 것과 이성적 삶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상대방의 입장이 되는 과정, 즉 *공감*은 *안에서 느끼는 것, 다른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 다른 사람이 내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친구에게 나의 감정을 나눌 때, 나는 그가 나를 이해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 오가며 이루어질 때, 서로에 대한 이해를 점점 깊게 하고 따라서 우정을 강화하는 소통의 흐름이 형성됩니다.

지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친구에게 내 생각, 내 아이디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나누고 그 이유를 설명하려 한다면, 나는 그가 나를 깊이 알 수 있는 가능성을 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정의 세 번째 요소를 다룰 준비가 되었습니다. 정서적 친밀감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감정의 나눔이 엔진을 작동시키는 윤활유와 같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당시의 질문을 반복합니다. 엔진에 부품이 없다면, 윤활유가 무슨 소용입니까? 그 부품이란 바로 관계의 *객관적인* 내용, 즉 *공통 관심사*입니다.

제 4 장. 공통 관심사

보통 사람들은 동료 관계에서 우정으로 나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동감이나 공감, 즉 감정의 친화성이 매개가 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출발점이 객관적 친화성일 수 있는데, 이는 어떤 공통 관심사에서 다른 사람과 뜻이 맞는 것을 말합니다. 그 공통 관심사는 매우 다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스포츠, 예술 활동, 지적 주제 등이 그 예입니다.

이 경우에도 우정과 동료 관계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그 관심사가 동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공유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우정은 동료들이 서로 공통된 어떤 생각이나 관심사, 또는 다른 사람들은 공유하지 않으며 그때까지 각자가 자신만의 보물이라 여겼던 어떤 취향을 발견할 때 싹튼다. 우정이 시작될 때의 전형적인 표현은 이런 것이다: '어, 당신도요?'" (C.S. 루이스, "네 가지 사랑").

이 친화성이 객관적인 이유는, 사람들이 동일한 대상에 이끌리기 때문입니다. 그 대상이 두 사람의 만남의 장이

됩니다. 예를 들어 영화, 오페라, 기술, 축구, 문화 같은 것이 그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료들은 함께 어떤 일을 합니다. 그러나 공통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동료 관계는 무언가를 함께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생겨난다. 사냥, 공부, 그림 그리기, 또는 무엇이든. 친구들도 계속 무언가를 함께 할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무언가 더 내밀한 것, 덜 광범위하게 공유되는 것, 그리고 정의하기 더 어려운 것이 있다. 그들은 계속 사냥을 할 것이지만 실체 없는 사냥감을 향해; 계속 협력할 것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알아채지 못하는 어떤 일을 위해; 길동무이기는 하지만 다른 종류의 여정에서." (C.S. 루이스, "네 가지 사랑").

공통 관심사가 있을 때, 소통은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관계가 풍요로워집니다. 서로의 관심을 끄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지고, 관점을 교환하며, 경험을 나눕니다. 어떤 활동, 이를테면 스포츠나 음악 취향이 공통 관심사라면, 함께 그것을 즐길 기회를 찾게 됩니다. 결국, 서로에게 다가가고 함께 지내려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비록 처음에는 공통 관심사라는 대상에 이끌려서이지만 말입니다. 공통 관심사는 함께 지내려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함께 지내는 가운데 관심사를 나누게 됩니다.

다양성과 상호보완성

이 객관적 친화성은 사물을 같은 방식으로 보거나 의견이 일치하는 데 있지 않고, 같은 주제에 대한 관심에서 뜻이 맞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통점은 디지털 기술일 수 있지만, 최고의 기기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각자 다른 취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는 고전 음악을 좋아하는 경우라면, 두 사람 모두 그 안에 담긴 아름다움에는 동의하지만, 한 사람은 모차르트가 바흐보다 낫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들은 오히려 우정을 더 돈독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다양한 기여로 서로 풍요로워질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공통 관심사에서의 친화성은 관점의 다양성으로 보완되고 강화될 수 있습니다. 두 친구의 관심이 경제학에 집중되어 있지만, 특정 나라에 가장 적합한 체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의견이 일치하는 날이 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그 주제에 대한 대화를 열정적으로 이어갈 것이고, 그 대화가 함께하는 많은 시간을 채워 줄 것입니다.

객관적 친화성의 약점

공통 관심사는 우정 관계의 내용을 이루는 엔진의 부품들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엔진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윤활유, 즉 정서적 친화성이나 공감의 중요성을 함께 강조해야 합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 과학자들이 모두에게 흥미로운 분야에서 수년간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지만, 동료 관계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통 관심사의 객관적 차원에만 머무른 채 서로의 인격적인 면에는 접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 객관적 친화성의 약점이 있습니다. 즉, 소통하는 사람들 사이에 반드시 친밀한 인격적 관계가 형성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정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감, 즉 감정의 소통이 필요합니다.

성 아우구스티노는 자신의 친구들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전합니다. 그 묘사 속에는 객관적 관심사와 주관적 감정이 하나로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면서 내 영혼을 더욱 강하게 사로잡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대화하고, 함께 웃으며, 즐겁게 서로를 섬기고, 훌륭한 책들을 함께 읽고, 서로 농담하며 함께 즐기는 것; 때로는 의견을 달리하기도 했지만 반감 없이, 마치 자기 자신과 의견이 다를 때처럼, 그리고 그런 드문 불일치로 많은 일치를 더욱 맛깔스럽게 하는 것; 서로서로 무언가를 가르치고, 떠나간 이들을 슬픔으로 그리워하며, 돌아오는 이들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 이런

표지들과 이와 비슷한 다른 표지들로써 우리의 영혼들은 녹아들었고, 많은 영혼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고백록" 제 4 권).

또한 관심사를 통해 상대방을 더 잘 알게 되고, 그를 이해하며 사랑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객관적 친화성도 유대의 끈이 됩니다. 자신을 개입시키지 않고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주제를 다루는 과학자들과 달리, 친구들은 자신의 인격이 투영되도록 허용하면서 관심사를 다룹니다. 이런 방식으로 공통 관심사는 우정의 인격적 특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관심사의 양과 질

공유된 관심사가 풍부할수록, 친구들 사이의 유대는 더 강하고 깊어집니다. 관심사의 풍부함은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 모두를 가리킵니다. 공통 관심사가 많을수록, 다양성 덕분에 관계가 더 쉽고 즐거워집니다. 그 내용이 깊고 질적으로 풍부하다면—예를 들어 인간적, 지적, 예술적, 영적 가치들을 포함한다면—사람들 사이의 유대는 더욱 충만하고 인격적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정서적 친화성과 이해심이 전제된다면, 친구를 사귀는 능력은 자신이 가진 관심사의 수와 질에 달려 있습니다. 또는 그 관심사를 넓혀 나갈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기도 합니다.

관심사가 많을수록 우정의 유대를 맺기가 더 쉽습니다. 그리고 관심사가 깊을수록 더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지 어떤 스포츠에만 공통 관심사가 있는 것과, 문화, 인간적 문제, 종교적 물음에도 관심을 나누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자신의 관심 영역과 내용을 넓힐 가능성이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는 만큼, 친구를 사귀는 개인적 역량을 키울 가능성도 우리 손에 달려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정의 조건으로 정서적 친화성, 이해, 공통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우정의 네 번째 요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제 5 장. 친구에 대한 관심

지금까지 우리는 상호적인 애정, 이해,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의지—그 고유한 행위인 원함—는 특히 공통의 관심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인권에 관심을 갖는다면, 그 내용, 근거, 구체적인 적용 사례 등을 알고 싶기 때문에 이를 연구하기로 결정하며, 그러한 결정은 의지의 행위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의지는 공통의 관심 대상뿐 아니라, 내가 관계를 맺는 바로 그 사람, 즉 친구 자체에 의해서도 이끌릴 수 있습니다. 감각적 또는 감정적 끌림과는 구별되는 이 의지적 원함—그 대상이 한 인격인—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를 우정에 필요한 네 번째 요소로 이끌어줍니다.

의지의 개입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좋다고 여기는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이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그리하는 것이다"(수사학 2, 4). 이것은 행동으로 옮겨져야 할 바람이며, 상대방이 가능한 최대의 선에 이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사랑은 본질적으로 의지의 행위로 이루어집니다.

이 의지의 행위는 친구에 대한 선택을 포함하며, 개인적인 취향을 포기해야 할지라도 그의 객관적인 선을 추구하겠다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일부 부분적인 자질 때문이 아니라 그 자체로 원하는, 전체 인격에 대한 선의입니다. 물질적 이익 때문에 누군가의 친구라고 말하는 사람은 우정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결점과 장점을 포함하여 친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그가 성장하도록 돕겠다는 마음이 없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친구는 관계의 주된 내용이 되며, 그전까지 핵심이었던 공통의 관심사보다 위에 놓이게 됩니다. 이 도약은 중요합니다. 관계가 진정으로 인격적인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친구가 이제 우리의 관심과 시간을 사로잡았던 것들보다 더 중요해집니다! 이제 친구에 대한 관심은 그의 삶을 이루는 모든 것으로 뻗어 나갑니다.

우정을 향한 자연스럽고 자발적인 과정에서, 친구를 선택하는 단계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보통은 성격의 유사성, 같은 직업에 종사하거나, 같은 정치·체육·종교 단체에 속하거나, 같은 동네에 살거나 하는 것이 우정을 촉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바뀌고, 그의 장점을 발견하기 시작하며, 그를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처음의 반감이 누그러집니다.

또는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했던 경우에도, 그 결단에 의한 태도의 변화 덕분에 특별한 어려움 없이 그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공통의 관심사에서도 마찬가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먼저 그 사람을 선택한 후에야 공통의 관심사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들, 특히 공통의 관심사와 감정적 친밀감에 대한 인격 선택의 영향에 대해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공통의 관심사에 대한 인격 선택의 영향

우정이 깊어진 후에도 공통의 관심사는 그 중요성을 잃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제 공통의 관심사는 더욱 소중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본래 불러일으키던 관심에, 그것이 친구의 일부를 이룬다는 사실이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림에 대한 취미는 그것이 친구의 기호 가운데 하나일 때 더욱 커집니다. 이것은 질적 또는 강도적 증가입니다.

또한, 공통의 관심사의 범위는 그 폭에서도 넓어질 것입니다. 앞으로는 전에는 무관심했던 친구의 것들도 관심을 갖게 되며, 이는 우정을 더욱 풍요롭게 합니다.

예를 들어, 전에는 문학에 무관심했던 사람이 이제 문학을 좋아하기 시작하는 것은 친구가 그에 대한 관심을 전달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친구에게 향하는 의지의 개입은 풍요롭게 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전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더욱 관심이 생기고, 이전에 관심이 없었던 것도 관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감정적 친밀감에 대한 인격 선택의 영향

그렇다면 친구를 선택하는 것이 공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감정적 친밀감보다 의지가 우선한다는 점을 기억합시다. 카롤 보이틸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전체적으로 공감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인격의 내면 생활이 감정이나 느낌에 국한되지 않듯이 말입니다. 그것들은 다만 그것의 일부 요소들에 불과합니다. 더 깊고 더 본질적인 요소는 의지이며, 의지는 사람들 사이의 사랑을 형성하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그리고 덧붙입니다. "우정에서—공감과 달리—의지의 참여가 결정적입니다"(“사랑과 책임”, 75 쪽).

우정에서 관계는 감정만이 제공하는 것보다 더 견고한 기반을 갖게 됩니다. 그 이유는 매우 명확합니다. 의지는 감정보다 더 일관성이 있습니다. 의지의 행위는 감정의 행위보다 더 항구적이고 안정적입니다.

반면 감정은 쉽게 변하고, 대개 개인의 통제를 벗어나는 변화를 겪습니다. 따라서 관계가 감정에만 의존한다면 안정성을 거의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혼인 관계에서 특히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순전히 감정적인 이유로 결합한 부부는, 그 감정이 변하여 분노나 시기 같은 부정적인 색조를 띠게 될 때 관계가 파탄에 이릅니다. 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상대방의 선을 추구하겠다는 의지적 결단에 관계가 기반한다면, 그러한 감정의 변화를 극복하고 혼인이 지속됩니다.

귀스타브 티봉은 한 예를 들어 이를 설명합니다. "비스마르크의 아내는 그의 빛나는 경력의 모든 우여곡절에 동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에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공주들과 대사 부인들 사이에서 당신은 촌스러운 나를 잊겠지요.'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 결혼한 것을 잊었습니까?' 이 문장은 결정적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당신을 사랑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서'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에 닻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실재를 감각과 상상력의 덧없는 감정들로부터 분리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본질적으로 의지의 행위여야 합니다. 우리 삶 전체를 상대방의 삶에 바치겠다는 결단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혼인의 불해소성 사상을 뒷받침하는 논거입니다 (...). 현대 문화에서는 사랑이 자발적 감정, 저항할 수 없는 느낌의 결과라고 가정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결단이요, 약속입니다. 사랑이 단순한 감정에 불과하다면, 영원히 사랑하겠다는 약속의 근거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정은 시작하고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 사이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굳건해 보이던 우정이 작은 차이들로 인해 끝나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극복하지 못한 감정적 반응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말입니다. 사실, 그것은 진정한 우정이 아니었습니다. 감정을 넘어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의지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친구의 선을 추구할 때, 자기를 잊게 되고 그러한 심리적 차이들은 중요성을 잃습니다. 솔직하게 대화하고, 필요한 것을 고치며, 용서하거나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하여 우정은 오히려 더욱 강해집니다. 이 모든 것은 감정에 대한 의지의 우위 덕분입니다.

이제 우리는 앞서의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우정은 세 가지 이유에서 친구들 사이의 공감을 강화합니다.

- 첫째, 관계에 안정성을 부여함으로써 공감의 약점으로부터 공감을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 둘째, 선택은 장점과 결점을 포함한 전체 인격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관계는 공감보다 더 넓습니다.
- 이것은 보통 친구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적 기울기를 낳으며, 공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생겨났던 것보다 더 넓습니다. 공감은 전체 인격이 아닌 일부 자질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선택의 대상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아가, 어떤 사람에게 공감을 느끼지 않다가도 그 사람이 자신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을 갑자기 알게 되면, 그의 감정적 태도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똑바로 묵상하고 결과에 따라 행동하십시오. 그대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당신이 그들을 '정말'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생각을 바꿀 겁니다. 당신 하기 나름입니다. (밭고랑 734).
- 셋째, 친구에게 최선을 추구함으로써 감정의 올바름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의지의 방향이 없는 감정은 쉽게 자기중심적이 됩니다. 반면, 타인의 선을 추구할 때, 감정 역시 이 목적을 위해 쓰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친구의 수를 늘리고자 하는 사람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정의 가능성이 다른 사람들과의 공감이 자발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출발점은 개인적인 결단, 즉 내가 친구가 되고 싶은 누군가를 선택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상호성과 친구의 수

분명히, 우정은 한쪽의 일방적인 결단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정은, 어떤 과정을 거치든, 상호성을 요구합니다. "사랑이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는 것도 필요합니다. 친구는 친구에게 친구이기 때문입니다"(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 II-II, q. 23). 상호 응답이 없으면 우정도 없습니다.

우정이 상호적일 때, 바다의 파도처럼 밀물과 썰물이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우정의 분명한 증표는 친구들이 서로에게 주는 도움을 통해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각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최선을, 상대방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줍니다.

때로는 친구를 돕는 것이 교정의 형태를 취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더 나은 친구가 되고 더 나은 친구를 갖기를 원한다면, 교정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정은 선택에 기반하며, 그 선택은 선별적이지만 배타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언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친구가 많을수록—일정한 한계 안에서—개인적 풍요로움과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그 반대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마음은 수축과 팽창의 리듬에 따라 움직입니다. 수문을 계속 열어두면 물살이 멈출 것입니다. 계속 닫아두면 피의 흐름이 막힐 것입니다. 우정에서도 마음이 그러합니다. 적절한 수의 친구들이 우리를 활기 있게 하고 풍요롭게 합니다. 너무 많으면 우정이 소진됩니다. 너무 적으면 우정이 고여 버립니다. 어떤 이들은 천성적으로 더 큰 우정의 능력을 갖고 있지만, 우리 모두는 심장의 크기를 키울 수 있습니다.

친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

우정의 본질은 친구에게 최선을 바라는 것입니다.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경우마다 받는 사람,

그의 처지와 필요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선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이 무엇을 줄 수 있는가에도 달려 있습니다.

동시에, 신앙의 관점에서, 한 인격에게 있어 가장 큰 선은 하느님 자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현재와 미래의 생명과 행복의 원천이십니다. 물론, 어떤 사람을 하느님께 가까이 이끌고자 하는 사람이 상대방이 그 도움을 받을 마음의 준비가 없어서 이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그 시도가 사생활에 대한 간섭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우정이 있을 때 이런 일은 보통 일어나지 않습니다. 최악의 경우, 상대방은 친구가 제공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지만, 아마도 미래에 그것을 받아들일 가능성에는 열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가장 중요한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 호세마리아의 결론이 이해됩니다. "우정은 보물입니다. 우리는 그 위대한 인간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또한 영혼들을 하느님께 이끄는 수단으로도 활용해야 합니다."(서한, 1940 년 3 월 11 일).

요약

마지막으로, 우정의 네 가지 요소—감정적 친밀감, 이해, 공통의 관심사, 친구의 선택—가 서로 어떻게 상호 의존하는지를 강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 요소들 중 어느 하나만으로는 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동시에 각 요소는 결국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됩니다.

이해 없는 공감은 불안정합니다. 관계에서 반대되는 감정이 나타날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처리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공통의 관심사 없는 감정적 친밀감은 내용 없는 관계가 되어 사라지거나 변형됩니다.

의지의 선택 없는 주관적 친밀감은 불안정하고 부분적이 되며 이기심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감정적 친밀감 없는 이해는 항상 불완전합니다. 공감이 결여되기 때문입니다.

공통의 관심사 없는 이해는 가능하지만 피상적인 수준에 머뭅니다. 상대방을 깊이 이해하기 위한 재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격 선택 없는 이해는 불충분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그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관대함이 결여되기 때문입니다.

주관적 친밀감 없는 공통의 관심사는 관계를 우정으로 만들기에 불충분합니다. 인격적 영역에 접근하지 못하고 관계가 단순히 활동을 공유하는 동료 관계 수준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간의 이해 없는 공통의 관심사는 의견 차이가 생길 때 관계를 양극화할 수 있습니다.

인격 선택 없는 공통의 관심사는 인격적 성격이 결여되어 불충분합니다. 공유된 관심사가 친구 자체보다 더 중요하게 됩니다.

인격 선택에 감정적 친밀감이 결여되면, 관계가 흘러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방에 대한 관심의 결과로 공감이 싹트고 우정이 자리 잡는 방식으로 극복될 수 있습니다.

인격 선택에 이해가 포함되지 않으면, 동일시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선택이 일관되다면, 결국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저항을 깨뜨리게 됩니다.

인격 선택에 공통의 관심사가 없으면, 관계는 권태로 이어지고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공통의 관심사들이 선택의 결과로 점차 생겨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관계는 점점 우정이 되어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서 결론을 내리자면, 공감, 이해, 공통의 관심사가 우정에 없어서는 안 될 요소들이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의지의 선택을 요구하는 친구에 대한

관심입니다. 이 선택은 다른 요소들을 현저히 강화하여 그것들에 풍요로움과 일관성을 부여하며, 심지어 그중 하나가 결여될 때도 그것이 생겨나게 합니다.

결론

이러한 분석을 마치며, 인간 삶의 구성 요소로서 우정의 위대한 가치가 확인되었습니다. 인간은 상호 보완적인 존재로서, 우리 자신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존재적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친구들은 그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한 자연적인 보완입니다. 우리는 그들로부터 애정, 이해, 도움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며, 지속적인 상호 풍요로움의 과정을 이룹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의 최선을 주어, 그들이 자신의 충만함에 이르도록 합니다.

친구들은 공감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감정을 서로 나눕니다. 함께 고통을 겪고, 함께 기뻐합니다. 그들을 하나로 묶는 애정으로 강하게 동일시하며, 서로를 무조건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들은 때로는 열정적인 대화를 나누며, 때로는 말조차 필요 없는 잊을 수 없는 시간을 함께 보내며 매우 즐겁게 어울립니다. 이러한 어울림은 진정한

우정에 존재하는 감정적 동일시와 감정적 조화 덕분에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친구들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합니다. 각자는 자신의 친구들을 깊이 압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저렇게 반응하는지 이해합니다. 왜 그들이 특정한 순간에 특정한 태도를 취하는지. 왜 그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지. 친구는 자신의 친구들의 내면으로 들어가, 그들의 내면 자체에서—감정적으로도 지적으로도—그들을 파악합니다. 그들이 느끼는 것을 느끼고—공감—그들의 개념들을, 그에서 비롯되는 특유한 시각과 함께—그들의 패러다임을—이해합니다. 이를 위해 잘 듣고 신뢰를 불러일으킬 줄 압니다. 또한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나누어 친구들이 자신을 이해하게 하며, 모든 진정한 우정의 고유한 상호성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친구들은 공통의 관심사를 갖고 있으며, 그것이 유대의 끈이 됩니다. 그 관심사들은 다른 사람들이 같은 방식으로 공유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배타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 사이의 관계는 달라집니다. 오직 그들과만 특정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고, 오직 그들과만 특정 생각들을 논의할 수 있으며, 오직 그들과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무관심하게 남을 어떤 관점들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그 교환에서 친구들은 서로를 보완하고 풍요롭게 합니다. 또한, 각자가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에 자신을 투영하면서, 상호 지식이 늘어나고 우정을 촉진합니다. 진정한 친구들은 공통의 관심사를 풍부하게 갖게 되며, 그 중에서도 관계를 풍요롭게 하는 더 깊은 내용과 질을 가진 것들이 두드러집니다.

친구들은 진정으로 서로를 아끼고,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며, 각자는 다른 사람을 위한 선을 바랍니다. 그들은 장점과 결점을 포함하여 있는 그대로의 서로를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서로가 성장하도록 돕고, 인간으로서 발전하도록 돕습니다. 어떤 필요에도 그들의 응답은 무조건적입니다. 친구는 자신의 친구들이 행복하도록, 그들이 부름 받은 충만함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헌신합니다. 신앙이 있다면 영적인 차원에서도, 친구들이 자신이 줄 수 있는 최대의 선인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과 하나 되도록 힘씁니다. 친구의 선을 추구하겠다는 결단은 전적이고, 절대적이며, 무조건적입니다.